

##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특성 연구: 야간실업고등학교 근로청소년 대상

양 국 선\*      장 성 숙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중퇴경험 청소년이나 잠재적 중퇴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그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보호요인이 무엇이며 특히 동일한 위험 조건에서도 잘 적응하는 청소년과 심각한 부적응 양상을 보이는 청소년을 구분하게 하는 보호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탐색연구이다.

이를 위해 부친 소재 근로청소년 야간실업학교의 중퇴경험 청소년 92명을 대상으로 7개의 위험요인(우울/포기성향, 충동/공격성향, 개인의 발달적 위험, 가족 구조, 가족 역기능, 사회경제적 지위, 생활사건 스트레스), 13개의 보호요인(책임감, 계획성, 내적 통제소재, 자기 효능감, 대인관계 기술, 부의 민주적 양육태도, 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가족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 학교의 민주적 분위기, 직무만족, 교과 외 활동 참여), 그리고 종속변인인 학교적응유연성으로 구성된 질문지 검사를 실시했다. 또 연구집단과의 비교를 위해 인천과 영등포에 소재한 J고와 Y고의 1, 2학년 남녀학생 109명에게도 위험요인 7개와 학교적응유연성으로 구성된 질문지 검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연구집단에서는 충동/공격성이, 비교집단에서는 우울/포기성향이 학교적응유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었고 비교집단에서는 결손가정출신 청소년이 학교적응력이 떨어지는 데 비해 연구집단에서는 오히려 높은 성취태도를 보였다. 학교적응유연성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보호요인은 학교의 민주적 분위기, 교사의 지지, 책임감이었다. 처음에 보호요인으로 설정되었던 또래지지는 오히려 위험요인으로 드러났으며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고·저적응집단 모두 결손가정,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발달적 위험 등 동일한 환경적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고적응집단이 낮은 충동성, 책임감, 효능감 등 개인자원이 더 많았고 교사의 지지와 민주적 학교분위기 지각 정도가 훨씬 높았다.

주제어 : 학교중퇴 청소년, 발달과제, 보호요인, 위험요인, 학교적응 유연성

양국선은 부친실업고등학교, 장성숙은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양 국 선, (134-060)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34-10 신성아파트 201동 207호,  
전화 : 02) 479-0046 E-mail : yanggs99@kornet.net

교육부 공식집계에 의하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중도탈락 중고등 학생 수는 1997년에 약 9만 명, 1998년에 8만 9천명, 1999년에 6만 9천명으로 해마다 전체 중고등 학생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가 학교를 중도탈락하고 있다(교육통계연보, 2000). 또 이렇게 외형적으로 학교를 그만 두진 않았지만 학교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어 실질적으로 학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몸만 교실에 있거나 학교에 적만 두고 있는 경우, 혹은 강제로 전학을 한 경우 등 '잠재적 중퇴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도탈락 후 복교하는 학생 수는 전체 중도탈락자의 약 17%밖에 안되며 그나마도 복교생의 50% 이상이 또 다시 학교에서 재탈락되고 있고 또 학교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험한 환경에서 심각하게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이숙영, 1997). 그런데 우리사회는 학교 이외의 다른 대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탈락은 청소년 개인의 삶의 발달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습득이나 성장 기회의 상실, 또 다양한 위험에의 노출 가능성 등을 의미해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복교한 모든 청소년이 다 그렇게 부적응적인 것만은 아니다. 동일하게 위험한 상황이지만 학교생활에 만족해하고 아주 잘 적응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분명 있다. 똑같이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인데 어떤 청소년들은 심각하게 부적응적 증상을 보이고 또 어떤 청소년들은 잘 적응하는 것일까? 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존의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이들의 부적응 증상에 주목하고 그런 부적응을 일으키게 하는 위험요인들을 연구해왔다. 이런 위험모델 연구들에 따르면 부적응 청소년은 잘 적응하는 청소년들보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고, 사회적 지지가 결핍되었으며

결혼 가정이거나 부적절한 양육을 받는 등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또 여러 위험요인이 복합되면 단일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것보다 그 영향이 몇 배로 가중된다고 밝힌다. 국내연구도 비슷해 대부분 가족구조나 부부갈등, 부모 양육태도, 자아개념, 빈곤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한 두 가지 변인을 가지고 그것이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백정재, 1996; 이명숙, 김영미, 1993; 전귀연, 최보가, 1995; 한미현, 1993). 이러한 위험요인의 발견이 부적응 가능성이 큰 개인들을 확인해내고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부적응 증상을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위험요인모델로는 높은 위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응을 보이지 않고 잘 적응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최근의 청소년 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발달과 적응에서의 개인차를 이들을 부정적 경로에 처하게 하는 위험요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 경로로부터 보호해 주는 보호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고 동일한 높은 위험상황에서도 잘 적응하는, 높은 적응유연성을 보이는 청소년의 특질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위험요인은 물론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보호요인을 같이 검토해 보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 위험요인이라는 것은 부적응적인 발달적 산물을 낳는 개인 또는 환경적 특성을 뜻하며, 보호요인은 그러한 취약한 환경 조건에서 위험의 원천에 작용함으로써 부정적 산물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말한다. 또 높은 위험에 처해 있어 일반적으로는 적응이나 발달에 심각한 도전이 되는 상황에서 명확한 유능성을 보이는 것을 적응유연성(resilience)이라 한다(Wenar, 1994). 이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최근 연구의 흐름은 위험요인 연구에서 점차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키는 보호요인의 발견과 그 기제를

밝히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

우선 보호요인 발견을 위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고위험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성격적, 환경적 특성을 다양하게 추적함으로써 공통점을 찾아 그 보호적 특성을 알아내고자 하였다. 대부분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성격적으로 의지가 강건하며 효과적인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고 있고 부모-자녀관계가 보다 긍정적이고 교사나 가족으로부터 받는 많은 지지가 보호작용을 한다고 밝혔다(Franklin, 1995; Gribble, 1991).

또 한편으로는 그 보호요인들이 어떻게 위험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적응유연성 있게 만드는지 그 과정이나 기제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Rutter(1990b)에 의하면 위기는 강하든 약하든 장애를 직접적으로 이끄는 반면, 보호과정은 위험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위기와 보호의 심리적 과정들이 중요 측면에서 다를 수 있으며 '보호'라는 용어는 위기상황에서 그 기능을 발휘한다고 하였다. 그는(Rutter, 1990b) 이렇게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간의 상호작용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중요한 것은 개인이 어떻게 위기에 반응하는가 하는 것으로 이것들을 요인이나, 변인이라고 하기보다 보호 과정 혹은 기제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하였다. 즉, 그는 보호요인의 나열보다는 보호과정을 매개하는 기제에 더 관심을 갖고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의 4가지 기제를 발견했다. 보호요인은 첫째, 위험요인의 직접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둘째, 위험요인으로 인한 부정적 연쇄반응을 감소시키며, 셋째, 자기존중감 혹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삶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주고 넷째, 발달 상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을 개방시켜 위험요인의 영향을 감소시킬 기회를 확대한다.

또 Masten & Coatsworth(1998)는 적응유연성 연구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고위험 상황에서도 높은 적응유연성을 보이는 청소년의 특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먼저 평가되어야 한다고 했다. 우선 처해 있는 상황이 전형적으로 고위험 상황이라 분류되든가 혹은 심각한 역경이나 외상적 경험(trauma)에 노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둘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적응이나 발달의 질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적응유연성이나 유능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문화적, 시간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한 개인에 있어서도 어떤 영역에서는 유능하나 다른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적응유연성을 평가할 상황적 맥락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중퇴의 고위험에 처해 있지만 잘 적응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개인차를 밝히려는 본 연구에서는 위의 방법에 따라 우선 그 세 가지 전제를 분명히 한 후 그 보호요인들을 확인해보려 한다. 즉, 첫째, 중퇴경험청소년들이 어떤 위기상황에 처해 있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둘째, 과연 현재 이들의 발달과 적응의 질이 좋은지 확인되어야 하고 셋째, 그러한 발달과 적응을 평가할 범주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선 어떤 범주에서 적응을 평가할 것인가 하는 세 번째 문제부터 확인해보자. 아동이나 청소년이 과연 잘 지내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잘 적응하고 있다' '유능하다' 하는 판단의 준거는 아주 특수하며 좁을 수도 있고 (예: 노래를 잘한다) 혹은 인간활동의 총 영역만 큼이나 풍부하고 넓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의 준거가 다양하긴 하나 청소년의 '적응'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시기의 발달과제와 관련해서 적응과 그 상황을 정의해야 한다는 점이다(Garmezy, 1996). 일반적으로 '발달과제'(Havighurst, 1972)란

그 동안 아동, 청소년 발달에 대해 여러 세대를 거쳐 전이된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일종의 합의 준거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적응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즉 어떤 사건의 영향을 그 개인이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 그것이 적응적인지 부적응적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기의 발달과제는 무엇인가? Masten과 Coatsworth(1998)는 청소년기 발달과제로 첫째, 또래들 사이에서의 긍정적 평판(사회적 유능성)이 미래의 사회적 유능성, 성취, 직업 유능성, 학과 외 활동, 자존감, 더 나은 정신적 건강을 예견한다고 보았다. 둘째,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인데 이는 법률,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과 관련된 행동을 뜻한다. 이 분야의 많은 연구는 규칙준수 행동보다는 공격, 비행 등 부정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왔으며 공격적 행동이나 넓은 의미의 반사회적 행동패턴은 아동기부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상당히 안정적임을 보고한다. 또한 반사회적 행동은 학업과 앞으로의 직업 유능성을 저해한다고 했다. 셋째, 아동, 청소년 발달의 가장 강력한 사회적 문맥 중 하나는 학교로 학업성취와 학교로부터 탈락되느냐 아니냐가 이러한 발달적 맥락에의 적응에서 개인의 성공을 재는 잣대가 된다고 했다.

Havighurst(1972)는 발달과제라는 관점에서 학업 성취 정도가 높고, 또래와 잘 어울리며, 학교생활에서 긍정적 행동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성이라 보았다. 또 Hernandez(1993)는 높은 성취동기나 성적 뿐 아니라 학교 이후의 직업에서의 성취와 관련되는 복합적 자질과 능력을 고려하여 고위험의 상황에서도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견뎌내고, 학업 성취가 높고, 학교에 대해 높은 동기를 보이고 대인상황이나 사회

적 문맥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을 유능성이라 했다.

물론 발달이나 유능성이라는 것이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리 사회 청소년의 발달과제는 앞으로 좀 더 깊이 연구되어야하겠지만 위에서 제기한 청소년기 발달과제들을 성취하는 데 학교라는 현장은 아주 유용한 장이 될 수 있다. 특히 환경적, 가족적 자원이 빈약한 청소년의 경우 학교 현장은 성인으로의 전환기까지 좀 더 안전하게 시간을 벌면서 사회적 유능성이나 규칙준수를 위한 단련을 하여 개인의 자원을 늘릴 수 있게 하고 또 성장에 도움이 될 기회를 더 많이 확대해 주기 때문이다(Sampson & Laub, 1994; Wenar, 1994). 이렇게 청소년기에 학교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주요 생활영역인 학교에서의 적응을 살펴보는 것이 청소년들의 전반적 적응정도를 파악하는 데에 효과적이라 여겨진다. 또한 학교에서의 적응을 단순히 문제의 부재(비행의 부재나 정신병리의 부재, 혹은 성적, 출결석, 지각상황, 처벌경험 등의 학교생활로 치환시키는 것은 적응이 아닌 부적응의 논의로 빠지게 한다. 따라서 적응을 문제 중심으로 파악해 어떤 행동적, 심리적 부적응이 없는 상태로 규정하기보다 위의 발달과제라는 관점에서 정의 내리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하겠다. 즉 학교적응유연성이란 고위험 상황에서도 학업성취도가 높고 학교생활에 대한 높은 동기와 흥미를 갖으며 학교 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박현선,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퇴경험 청소년 혹은 잠재적 중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전반적 적응정도가 가장 포괄적으로 나타나는 학교라는 장에서 적응과 관련된 위험요인은 무엇이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밝히고 또한 이들의 학교적응유연성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또한 동일한 위험상황에서도 높은 적응력을 보이

는 청소년들은 부적응 청소년들과 달리 어떤 보호요인을 갖고 있는지 차례로 밝혀 보려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해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다고 보고 그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 위험요인

**개인내적 위험요인(충동/공격성향, 우울/포기성향, 발달적 위험):** 충동적인 사람은 반항적이고 화를 잘 내며 타인에 대한 우호성, 책임성,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며(Conger, 1966), 아동, 청소년기의 우울은 불안, 반항, 자학적 행동, 비행, 학교생활의 문제, 학습장애, 과활동성, 공격적 행동, 신체적 고통 등의 외적인 다른 형태의 문제들로 표출된다(Chiles, Miller, & Cox, 1991). 또한 신체 및 정신장애나 유전적 질병, 만성질환 등의 의료적 위험, 발육상태 부진, 낮은 지능 등은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Garmezy, 1996; Hernandez, 1993).

**가족관련위험요인(가족의 구조적 결손, 가정의 역기능적 분위기):** 많은 연구들이 가정의 구조적 결손이 청소년의 정서, 태도, 사회성 등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가정의 구조적 결손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이명숙, 1994). 또한 가족치료자들은 아동, 청소년의 부적응을 개인의 정신내적 문제라기보다는 병리적인 가족체계나 역기능적인 가족의 산물로 보고 역기능적일수록 가족간 상호작용이 빈약하고 비타협적이며 정서적 지지가 결여되어 있어 아동, 청소년이 정신병리나 부적응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낮은 자아개념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석말숙, 1988; 전귀연, 최보가, 1995).

**사회환경적 위험요인(사회경제적 지위, 스트레스적 생활사건):**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인구학적 배경인데 일반적으로 하류층은 낮은 교육수준, 불안정한 직업, 낮은 수입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부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사건을 하나의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스트레스와 적응간의 관계를 연구해 온 결과 누적된 스트레스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부적응 사이에 대개 .30의 상관을 보고하고 있다.

## 보호요인

**개인내적 보호요인(책임감, 계획성, 내적 통제소재, 자기효능감, 대인관계기술):** 적응유연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다양한 대인적·과제 수행적 상황에서 책임감이 있고 사회적으로 성숙하며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환경에 잘 대처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미리 상황을 그려보는 능력을 지녔으며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성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utter, 1987; Werner, 1990). 많은 연구들이 내적 통제소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만난 도전적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 강한 노력을 보임을 보고한다. Alva와 Padilla(1991)도 고위험의 빈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적 통제를 하는 청소년들이 환경적 역경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응적인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자신이 그 상황을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면 그 상황을 회피하지만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자신 있게 대처행동을 하게 되며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노력을 많이, 오래하지만 자기효능감이 약하면 노력을 적게 하거나 아예 포기해 버린다.

또 온정, 자발성, 표현성 등의 높은 사회적 기술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보호역할을 한다고 보고한다(Luchar, 1991).

**개인간 보호요인(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가족·교사·또래지지):**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관계의 질, 아동의 지적 능력, 학교적응과 학업성취, 사회적 능력, 자아존중감 발달, 도덕성 발달 및 문제행동 등 다양한 측면의 발달과 관련되며(이선경, 1998), 부모, 또래, 교사 지지의 영향력이 각각 발달상의 차이가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모 지지는 아동, 청소년기 적응에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또 Sandler, Miller, Short와 Wolchik(1989)는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키고 상황적으로 적절한 내적 통제성을 증가시키며 사회적 관계의 지각된 안전감을 증가시킴으로써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그 매개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회환경적 보호요인(민주적 학교분위기, 근로활동에의 참여, 교과외 활동 참여):** Garmezy(1991)에 의하면 학교 분위기 자체가 반응적 분위기로 뚜렷한 규범으로 조직화되어있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며 좋아하고 믿을 수 있는 교사가 존재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 이외의 활동에 참여할 때 보다 긍정적인 적응유연성이 발달한다. 또한 청소년기 동안 일 영역에서의 유능성 발달은 성인 역할로의 전환의 한 표시로 일의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효능감과 자기확신을 발달시키고 성인기로의 성공적 전환에 요구되는 기술과 능력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Masten & Coatsworth, 1998).

**연구문제 1.** 중퇴 경험 혹은 잠재적 중퇴 청소년의 위험요인은 학교적응유연성과 관계가 있

는가?

**연구문제 2.** 중퇴 경험 혹은 잠재적 중퇴 청소년의 보호요인은 학교적응유연성과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동일한 고위험 상황에서도 학교 적응유연성이 뛰어난 청소년과 학교 부적응 양상이 심각한 청소년을 구분하는 보호요인은 무엇인가?

## 방 법

### 연구대상

부천 소재의 야간실업고등학교 근로청소년 92명(1학년 30명, 2학년 32명, 3학년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학교는 전교생의 약 75%가 이 학교 입학 이전에 중퇴 경험이 있는 학생들로 입학 후 약 50%가 재탈락한다. 거의 대다수가 빈곤한 가정 출신들이며 낮에는 직장생활(제조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일종의 대안학교이다.

이 연구집단이 어느 정도의 위험상황에 처해 있으며, 과연 객관적으로도 학교적응유연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대략 중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인문계고등학교 3학년(인천소재 J고 1학년과 서울 영등포 소재 Y고 남, 녀 1학년씩)의 학생들을 같이 조사했다.

### 측정도구

#### 위험요인 측정도구

##### (1) 개인내적 위험요인

① 개인의 발달 및 의료적 위험: 본인의 신체장

애나 정신장애, 만성 질환, 발육상태, 낮은 지능 등을 묻는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② 충동/공격성향: Buss & Perry(1992)의 Aggression Questionnaire의 29 문항 중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박현선(1998)이 번안한 충동적 공격성과 관련된 5 문항을 사용했다.

③ 우울/포기성향: 김인숙(1994)이 빈곤여성에게 사용한 우울 척도 중 특정 시기의 반응적 우울보다 기질적 우울/포기성향을 측정하는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2) 가족관련 위험요인

① 가족기능척도: Baldwin, Epstein과 Bishop (1983)이 제작한 McMaster 가족평가도구(Family Assessment Device; FAD) 중 이선경(1997)이 번안한 일반적인 가족기능 척도를 사용했다.

② 가족의 구조: 양친가정과 결손가정으로 나누고 결손가정은 다시 재혼가정, 편부가정, 편모가정, 양친부재가정으로 분류했다.

## (3) 사회환경적 위험요인

① 사회경제적 지위 측정도구: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 경제수준을 각각 평정한 후 합산하여 하류, 중하류, 중상류, 상류로 구분했다.

② 생활사건 척도: Johnson과 McCutcheon(1980)의 생활사건 조사표(The Life Event Checklist: LEC)를 이영자(1995)가 한국청소년의 실정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했다.

## 보호요인 측정도구

### (1) 개인내적 보호요인

① 계획성: Alva(1989)의 Youth Coping Scale에서 학교영역에서의 계획성 문항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박현선(1998)이 수정 보완한 4문항을 사용했다.

② 책임감: Alva(1989)의 Youth Coping Scale에서 학교, 가정, 또래 영역에서의 책임감 문항을 박현

선(1998)이 수정 보완한 4문항을 사용했다.

③ 내적 통제소재: Alva(1989)의 Youth Coping Scale에서 학교영역에서의 통제감 문항부분을 한국적 상황에 적절하게 수정 보완한 6문항 척도를 사용했다.

④ 자기효능감: Hernandez(1993)가 사용한 유능감 척도, Sherer등이 제작한 자기유능감 척도,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를 바탕으로 박현선(1998)이 제작한 6문항 척도를 사용했다.

⑤ 대인관계기술 ; Guerney, Schlein의 대인관계 변화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 RCS)를 바탕으로 박현선(1998)이 제작한 7문항 척도를 사용했다.

### (2) 개인간 보호요인

①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이시형, 이세용, 정현희와 박현선(1996)의 연구에서 개발, 구성한 양육태도 문항 중 민주적 양육태도와 관련된 5문항의 하위척도를 활용했다.

② 사회적지지: Antonucci과 Kahn(1980)는 사회적 지지를 크게 감정(affect), 긍정(affirmation), 원조(aid)의 세 요소로 규정했고 이런 정의에 따라 Abbey, Abramis와 Caplan(1985)이 6개의 사회적 지지 문항을 고안했다. 이것을 전지아(1990)가 번안하고 유성은(1997)이 일부 수정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가족, 또래, 교사 각각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

### (3) 사회환경적 보호요인

① 학교의 심리사회적 환경-민주적 분위기: Cavazos 등(1990)이 사용한 학교생활척도(school life scale)로 교사와 학생들간의 친밀도, 교사들의 훈육 활동, 학교의 안전정도, 기회의 공정성 등 학교 내 관계 및 환경에 대한 지각을 묻는 8문항 척도를 사용했다.

② 직무만족: Smith 등(1969)의 JDI(Job Descriptive

Index), 강성희(1989)의 직무만족도, 김경숙(1987)의 직무만족도, 김재인(1987)의 생활만족도, 김준곤과 손충기(1979)의 직무 만족도를 바탕으로 이영옥(1997)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했다.

③ 교과 외 활동 참여도: 학교 특별활동 동아리, 학교 밖 클럽, 기타 종교 모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를 물어 각각 4점씩 총 12점으로 측정했다.

### 학교적응유연성 척도

학교에 대한 흥미, 성적이나 학업 관련 태도, 학교 규범 준수의 3가지 하위요인과 관련된 문항(박현선, 1998)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는 학교나 교사, 수업에 대한 흥미나 애착과 관련된 것을,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는 성적, 성적의 주관적 의미, 공부에 대한 취미, 학업태도를 측정하며, 학교 규범 준수는 교사의 지시 준수, 학교 규범 준수, 또래간 싸움, 쾰닝, 지각, 정학이나 근신 같은 징계처벌 경험, 무단결석, 싸움경험, 수업 무단이탈 경험을 측정한다.

### 분석방법

1) 연구·비교집단별로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 위험정도와 학교적응유연성 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2)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각각에 대해 학교적응유연성과의 상관과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3) 연구집단에서 학교적응유연성 점수의 상, 하위 25%를 절단점으로 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집단과 잘 적응하지 못하는 집단으로 나누고 두 집단간에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했다.

## 결 과

### 주요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연구집단의 평균연령은 19.4세로 약 73%가 자퇴나 강제전학의 경험이 있었고 양친부모가 다 계신 경우는 약 53%뿐이었다. 또 47%만이 학비를 후원해 줄 사람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약 76%의 학생들이 교칙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직장에 다니고 싶다고 응답했다. 부의 69%, 모의 71%가 중졸 이하의 학력이었고 부의 약 43%가 무직이나 단순노무직이며 모의 경우는 21.7%가 전업주부이고 단순노무직이 33%였으며 전체의 약 76%가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하류나 중하류에 해당되었다. 비교집단의 경우는 자퇴나 강제전학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었으며 109명 중 6명만이 결혼가정(편모가정)이었다. 모든 위험요인에서 연구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높았는데 특히 스트레스 생활사건은 연구집단의 평균이 1 표준편차 이상 높아 훨씬 위험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이 연구집단 전체가 고위험상황에 처해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 위험요인과 학교적응유연성

연구집단에서는 충동성이라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큰 설명량을 갖는데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족 관련 요인들은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았다. 특히 평균에서 비교집단의 약 2배나 되는 생활사건도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비교집단에서도 가족의 구조나 생활사건 등은 학교적응유연성을 별로 예언하지 못하며 개인내적 변인들이 큰 설명력을 보였다. 또 연구집단에서는 위험요인이 학교적



표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신뢰도(Cronbach's  $\alpha$ )

척도	문항수	이전연구	본연구	문항번호
개인내적 위협요인	16	.73	.74	
발달위험	5	.60	.60	III 1, 2, 3, 4, 5
우울/포기	5	.65	.75	III 11, 12, 13, 14, 15
충동/공격	6	.71	.68	III 6, 7, 8, 9, 10
가족관련 위협요인				
가족기능	12	.81	.91	II 1 ~ 12
사회환경적 위협요인				
사회경제적 지위			.84	I 5 ~ 10
생활사건	40		.91	IV 1 ~ 40
개인내적 보호요인	27	.85		
계획성	4	.71	.75	VII 11 ~ 14
책임감	4	.60	.60	VII 1 ~ 4
통제소재	6	.82	.70	VII 5 ~ 10
효능감	6	.82	.81	VII 15 ~ 20
대인관계기술	7	.77	.70	VII 21 ~ 27
개인간 보호요인				
부 양육태도	5	.97	.95	VI 1 ~ 5
모 양육태도	5	.96	.95	
가족지지	6		.88	VII 1 ~ 6
또래지지	6		.78	
교사지지	6		.83	
사회환경적 보호요인				
학교분위기	8	.75	.60	IX 1 ~ 8
직무만족	35	.90	.93	
보수	5	.83	.89	XI 1, 13, 21, 22, 23
성취 및 발전	7	.81	.85	XI 5, 6, 7, 8, 11, 26, 33
감독	5	.69	.71	XI 15, 28, 29, 30, 31
근로조건	5	.57	.60	XI 2, 3, 4, 24, 25
동료관계	4	.61	.65	XI 9, 12, 14, 32
생활만족	6	.67	.74	XI 16, 17, 18, 19, 20, 21
사직의사	3	.76	.75	XI 10, 34, 35
교과의 활동	3			X 1 ~ 4
학교적응유연성	20	.81	.75	
학교흥미	6	.70	.81	V 1 ~ 6
성취태도	5	.68	.73	V 7 ~ 11
규범준수	9	.77	.63	V 12 ~ 20

표 2.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의 변인별 평균 비교

변인	연구집단(N=92)			비교집단(N=109)		
	범위	M	(SD)	범위	M	(SD)
학교적응유연성	33-72	54.68	( 8.90)	38-74	58.02	(7.05)
학교흥미	7-24	15.56	( 3.63)	6-23	15.47	(3.63)
성취태도	5-20	11.67	( 2.95)	6-19	12.91	(2.62)
규범준수	18-33	26.45	( 4.08)	22-35	29.58	(2.94)
개인내적 위험요인						
발달위험	0-3	.52	( .71)	0- 2	.23	( .51)
충동/공격	0-5	2.54	( 1.53)	0- 5	1.95	(1.28)
우울/포기	0-6	2.74	( 1.93)	0- 6	2.06	(1.79)
가족관련 위험요인						
가족기능	0-48	27.03	( 8.29)	3-46	25.62	(6.41)
사회환경적 위험요인						
생활사건	0-83	19.45	(16.97)	3-46	10.31	(9.43)
개인내적 보호요인						
계획성	4-16	10.37	( 2.87)			
책임감	7-16	13.07	( 1.97)			
통제소재	12-24	20.24	( 2.83)			
효능감	6-24	16.09	( 3.98)			
대인관계	11-24	17.78	( 3.28)			
개인간 보호요인						
부 양육태도	0-20	10.98	( 6.86)			
모 양육태도	0-20	12.98	( 6.40)			
가족지지	6-24	17.39	( 4.92)			
친구지지	8-24	19.12	( 3.38)			
교사지지	6-24	16.76	( 3.96)			
사회환경적 보호요인						
학교분위기	14-30	23.09	( 3.56)	9-27	19.50	(3.25)
직무만족	3-130	86.34	(19.13)			
교과의 활동	0-12	5.47	( 1.92)			

표 3. 위험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집단)

예측변인	학교 흥미		성취태도		규범준수		전체 학교적응유연성	
	$\beta$	t	$\beta$	t	$\beta$	t	$\beta$	t
개인내적 위험요인								
발달위험	-.036	-.312	-.097	-.885	.079	.739	-.012	-.144
충동/공격	-.243	-2.078*	-.222	-2.000*	-.441	-4.047***	-.372	-3.357**
우울/포기	-.080	-.650	-.221	-1.900	-.063	-.556	-.140	-1.211
가족관련 위험요인								
가족구조	.043	.340	.313	2.584*	.068	.575	.154	1.287
가족기능	-.228	-2.117*	-.150	-1.473	-.042	-.422	-.157	-1.541
사회환경 위험요인								
사회경제적지위	.188	1.479	.151	1.249	.005	.040	.124	1.028
생활사건	.092	.772	.104	.911	-.113	-1.015	.019	.166
R <sup>2</sup>	.180		.253		.280		.266	

주. \* p<.05 \*\* p<.01 \*\*\* p<.001

표 4. 위험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비교집단)

예측변인	학교 흥미		성취태도		규범준수		전체 학교적응유연성	
	$\beta$	t	$\beta$	t	$\beta$	t	$\beta$	t
개인내적 위험요인								
발달위험	.070	.731	.192	2.040*	.082	.845	.147	1.644
충동/공격	-.066	-.682	-.181	-1.892	-.140	-1.408	-.109	-2.085*
우울/포기	-.334	-3.298***	-.287	-2.921**	-.054	-.532	-.297	-3.143**
가족관련 위험요인								
가족구조	.019	.201	-.113	-1.218	-.021	-.220	-.034	-.388
가족기능	-.092	-.902	-.177	-1.788	-.125	-1.214	-.147	-1.535
사회환경 위험요인								
사회경제적지위	-.062	-.642	.016	.175	-.286	-2.930***	-.130	-1.448
생활사건	-.123	-1.275	-.007	-.072	-.127	-1.293	-.202	-2.229*
R <sup>2</sup>	.200		.214		.154		.302	

주. \* p<.05 \*\* p<.01

용유연성의 약 27%를, 비교집단에서는 약 30%를 설명해 비교집단이 약간 높기는 하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연구집단에서는 충동/공격성이, 비교집단에서는 우울/포기성향이 학교적용유연성 전반의 공통된 위험요인이었다. 눈에 띄는 또 다른 차이점은 비교집단에서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결손가정 출신의 청소년이 학교적용과의 관계에서 부적인 경향성을 보이는데 비해 연구집단에서는 결손가정 출신 청소년이 오히려 성취태도가 좋음을 보여주었다.

### 보호요인과 학교적용유연성

다음에는 각 보호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

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교사의 지지와 학교분위기가 대단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고 하위요인인 규범준수에서는 책임감이 가장 큰 설명력을 보였다. 그러나 보호역할을 하리라 추정했던 또래지거나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내적 통제소재 등은 미약하지만 오히려 부적인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앞장에서 위험요인은 총 학교적용유연성의 약 27%를 설명한데 비해 보호요인은 약 48%를 설명해 전체적으로 학교적용은 위험요인보다는 보호요인이 훨씬 큰 예언력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독립변인들의 수가 많아 변인들간에 다

표 5. 보호요인이 학교적용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Enter 방식)

예측변인	학교흥미		성취태도		규범준수		전체 학교적용유연성	
	$\beta$	t	$\beta$	t	$\beta$	t	$\beta$	t
개인내적 보호요인								
계획성	-.006	-.049	.130	.984	.181	1.347	.125	1.053
책임감	.013	.097	.107	.728	.358	2.380*	.206	1.558
통제소재	-.077	-.627	-.183	-1.325	-.145	-1.029	-.161	-1.298
효능감	.031	.228	.256	1.678	-.101	-.646	.052	.380
대인관계	.067	.509	-.076	-.513	-.110	-.723	-.049	-.365
개인간 보호요인								
부 양육태도	-.016	-.094	-.021	-.106	-.096	-.484	-.065	-.370
모 양육태도	.004	.024	-.117	-.664	-.035	-.197	-.045	-.288
가족지지	-.073	-.422	.007	.035	.087	.433	.012	.066
또래지지	-.221	-1.715	-.151	-1.039	-.179	-1.208	-.223	-1.705
교사지지	.479	3.648**	.374	2.525*	.209	1.381	.417	3.131**
사회환경적 보호요인								
학교분위기	.375	3.127**	.234	1.732	.212	1.530	.330	2.713**
직무만족	.101	.832	-.101	-.740	-.048	-.340	-.014	-.114
교과외활동	.063	.566	.005	.042	.106	.829	.076	.678
$R^2$	.490		.350		.323		.476	

주. \*  $p < .05$  \*\*  $p < .01$

표 6. 보호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stepwise 방식)

종속변인	예측변인	Beta	R <sup>2</sup>	R <sup>2</sup> 변화량	t
학교적응 유연성	학교분위기	.308	.253	.253	2.789**
	교사지지	.365	.350	.097	3.153**
	또래지지	-.217	.391	.041	-2.078*
학교흥미	책임감	.219	.432	.041	2.053*
	학교분위기	.395	.304	.304	3.731***
성취태도	교사지지	.387	.429	.125	3.653**
	교사지지	.424	.179	.179	3.681***
규범준수	책임감	.401	.160	.160	3.442**

주. \* p<.05 \*\* p<.01 \*\*\* p<.001

중공선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다단계 투입방식(stepwise)으로 다시 한번 회귀분석을 해 보았다.

Enter 방식의 결과와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 또래지지 변인이 확실하게 학교적응유연성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기존 연구들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는 또래지지가 연구자의 처음 생각과 달리 보호요인이라기 보다 오히려 위협요인으로 학교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 집단의 성격에 따라 또래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었다.

다음에는 위협요인과 보호요인 중 어느 것이 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협요인과 보호요인을 함께 예언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표 7에 의하면 교사지지, 충동/공격성향, 책임감,

표 7. 위협·보호요인이 학교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Stepwise)

종속변인	예측변인	Beta	R <sup>2</sup>	R <sup>2</sup> 변화량	t
학교적응 유연성	학교분위기	.310	.253	.253	2.812**
	교사지지	.291	.350	.097	2.659**
	충동/공격	-.270	.415	.065	-2.586*
학교흥미	학교분위기	.395	.304	.304	3.731***
	교사지지	.387	.429	.125	3.653**
성취태도	교사지지	.419	.179	.179	3.750***
	가족구조	.321	.259	.060	2.925**
	효능감	.247	.315	.056	2.215*
규범준수	충동/공격	-.468	.270	.270	-4.559***
	책임감	.327	.374	.104	3.185**

주. \* p<.05 \*\* p<.01 \*\*\* p<.001

표 8. 학교적응 유연성 고·저 적응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N(명)	평균 (SD)	
저 적응유연성집단	23	42.96 (4.92)	비교집단평균 58.05 - 7.05(SD)×2 = 43
고 적응유연성집단	25	65.04 (3.60)	58.05 + 7.05(SD)×1 = 65.1

민주적 학교분위기, 가족구조, 효능감의 6개 변인이 유의미하게 학교적응유연성을 예측했다. 특히 학교의 민주적 분위기와 교사지지, 충동/공격성의 3가지 변인으로 총 학교적응유연성의 약 42%를 설명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성취태도에 관한 하위요인에서 가족구조와 자기효능감이 주요변인으로 추가된 점이다.

또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교적응유연성은 위험요인보다는 보호요

인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위험요인에서는 충동/공격적인 개인성격 변인이, 보호요인에서는 교사의 지지나 민주적 학교 분위기가 중요함이 일관되게 드러났다.

**학교적응유연성 고·저 집단간 차이 검증**

연구집단 내에서 동일한 위험상황임에도 잘 지내는 청소년과 부적응 양상이 심각한 청소년을 구

표 9. 위험요인 T-test (학교적응유연성의 고·저 적응집단)

변인	M	SD	t
학교적응유연성			
충동/공격	저적응집단	3.5652	4.259***
	고적응집단	1.8800	
우울/포기	저적응집단	3.5217	2.406*
	고적응집단	2.2800	
발달위험	저적응집단	.4783	.201
	고적응집단	.4400	
가족구조	저적응집단	2.13	.121
	고적응집단	2.08	
가족기능	저적응집단	27.8696	1.567
	고적응집단	23.7600	
사회경제적 지위	저적응집단	9.2609	-703
	고적응집단	10.0800	
생활사건	저적응집단	24.2174	2.435*
	고적응집단	13.9600	

주. \* p<.05 \*\* p<.01 \*\*\* p<.001

분하는 보호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연구문제 3>의 탐색을 위해 우선 적응유연성 점수 상·하위 25%를 절단점으로 하여 두 집단을 구성하였다.

집단간 비교를 하기 전에 우선 고 적응집단이 과연 객관적으로도 적응적이라 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연구집단의 적응 자체가 대단히 낮기 때문에 연구집단 내에서는 잘 적응하는 청소년일지라도 객관적으로는 부적응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위집단의 평균은 42.96으로 비교집단의 평균보다 2표준편차나 아래로 훨씬 더 부적응적이며 상위집단의 평균은 65.04로 비교집단의 평균보다 1표준편차 위로 연구집단이 전반적으로 부적응적인 하나 잘 적응하는 청소년들은 외부 집단과 비교해도 적응적이라 판단할 수 있었다.

### 위험요인에 대한 집단간 차이검증

고적응집단은 가정의 구조적 결손이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개인의 발달적 위험에서는 비교집단 평균(표 2 참조)보다 월등히 높아 저적응집단과 마찬가지로 높은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충동/공격성이나 우울/포기성향 등의 개인내적 특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고 저적응집단이 더 많은 생활사건을 겪고 있었으며 가정이 더 역기능적이었다. 즉 두 집단 모두 심하게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저적응집단은 거기에 대처할 개인자원이 보다 더 열악함을 알 수 있었다.

### 보호요인에 대한 집단간 차이검증

학교적응유연성 고·저 집단간에 차이가 나는 보호요인들로는 학교분위기, 책임감, 교사지지, 효능감, 계획성이었는데 고적응 집단이 저적응 집단에 비해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개인간 자산을 모

두 유의미하게 높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집단 모두 결손가정출신에 가난하고 건강이나 지능 면에서의 발달적 위험이 높지만 잘 적응하는 청소년이 부적응적 청소년보다 충동성이 낮고 책임감과 계획성이 있고 자기 효능감이 높으며 교사의 지지도 높게 지각하고 학교분위기도 민주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분위기와 교사지지는 연구 앞부분에서 학교적응유연성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일관성 있게 나온 것들이다. 특히 민주적 학교분위기는 박현선(1998)의 연구에서도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 밝혀져 그만큼 교사의 공정한 상벌체계나 학교의 안전한 분위기 등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중퇴를 경험했거나 혹은 중퇴의 고 위험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발달적 적응에 도전이 되는 위험요인들과 그 위험요인들의 영향을 완화하는 보호요인들을 알아보고 특히 동일한 위험상황에서도 잘 적응하는 청소년들과 부적응적인 청소년들의 개인차를 만드는 보호요인이 무엇인지 그 특성을 밝히고자 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질문지를 통해 변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질문지 조사 연구의 특성상 여러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 후 이러한 제한점들을 보완할 추후연구를 위해 학교적응유연성 점수의 상위 25%에 드는 25명 중 개인 형편상 면접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10명에 대해 학교 다니면서 언제 가장 힘들었는지, 그 때 누구의 도움으로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위의 결과들과 면접결과를 참고해서 다음과 같

표 10. 보호요인 T-test (학교적응유연성의 고·저 적응집단)

변인	(학교적응 유연성)	M	SD	t
계획성	저적응집단	9.3913	3.4077	-2.167*
	고적응집단	11.2800	2.6064	
책임감	저적응집단	11.8696	1.9611	-4.717***
	고적응집단	14.2400	1.5078	
통제소재	저적응집단	20.0000	3.2613	-.833
	고적응집단	20.6800	2.3580	
효능감	저적응집단	14.9130	3.2462	-2.978**
	고적응집단	17.9200	3.7072	
대인관계	저적응집단	17.5000	2.8577	-1.228
	고적응집단	18.5833	3.1056	
부양육태도	저적응집단	10.0909	5.8709	-1.093
	고적응집단	12.0800	6.5187	
모양육태도	저적응집단	12.1304	5.8099	-.037
	고적응집단	12.2000	7.1414	
가족지지	저적응집단	16.3478	5.4823	-1.149
	고적응집단	18.0400	4.7214	
또래지지	저적응집단	19.9545	4.3969	.889
	고적응집단	19.0400	2.5573	
교사지지	저적응집단	14.6522	5.2450	-3.751***
	고적응집단	19.1200	2.7129	
학교분위기	저적응집단	20.7727	3.5715	-4.987***
	고적응집단	25.4583	2.7816	
직무만족	저적응집단	82.0435	20.4172	-1.633
	고적응집단	90.2800	14.2113	
교과의 활동	저적응집단	4.7391	1.7114	-1.505
	고적응집단	5.5833	2.1042	

주. \* p<.05 \*\* p<.01 \*\*\* p<.001



은 점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선, 중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위협요인일 것이라 예측했던 7개 변인 가운데 개인성격변인인 충동/공격성과 우울/포기성향이 주 위협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연구집단에서는 충동/공격성이, 비교집단에서는 우울/포기 성향이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두 집단 청소년의 성격적 특성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 같이 부적응적이어도 그 원인이 다르거나 혹은 나타나는 행동이 다를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가족관련 위협요인에서는 가정의 구조보다는 가정의 역기능이 더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것은 비교집단과 달리 연구집단에서는 결손 가정 청소년이 더 높은 성취태도를 보여 오히려 가정의 구조적 결손이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난 점이다. 이는 아마도 그 동안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결손가정 청소년들이 이 학교에 들어와 대리부모 역할을 하는 교사로부터 지지를 받자 그것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크게 지각하게 되고 그것이 성취태도를 높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손가정 등의 외부 환경적 위협요인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완충시켜줄 보호요인이 없을 때 문제가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결과라 생각된다.

사회환경적 위협요인으로 잦은 생활사건의 경험은 적응적인 청소년과 부적응적 청소년을 가르는 주요변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적응과 직접적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빈곤이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접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주기보다 부부 불화나, 부모의 양육태도 등을 매개고 하여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이선경, 1997; Simons, Lorenz, Conger, & Wu, 1992)과 일치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혹은 이 연구집단의 특

성 상 대부분 낮은 사회경제적 계층이기 때문에 집단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연구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다양화한 추후연구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에는 처음에 보호요인이라 예측했던 13개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개인내적 변인들 중 책임감과 계획성, 효능감은 학교적응을 돕는 보호요인임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대인관계 기술과 내적 통제소재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질 않았다. 좀 더 민감한 척도를 사용한 추후연구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개인간 보호요인으로 대부분의 아동, 청소년 발달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지는 부모 양육태도 변인이 본 연구에서는 적응과 별로 상관이 없이 나왔을 뿐 아니라 심지어 미약하긴 하지만 부적인 경향성까지 보였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뿐 아니라 면접 중에 나타난 부모관계를 살펴보아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결과이다. 이는 연구대상의 평균나이가 19.4세로 상당히 많은 데다 이들이 현재 부모 보호 밑에서 살고 있지 않으며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근로청소년이기 때문에 부모관련 변인이 민감하게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혹은 이 연구집단의 약 50%가 결손가정임을 생각해 볼 때 이 청소년들의 부모 자원이 워낙에 빈약해 실제로 아무런 보호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청소년들에게는 실제로 보호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자상하게 감찰(monitoring)하는 좀 더 지시적이고 강력한 부모의 개입이 민주적 양육태도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Patterson과 Loeber(1984)는 심한 반사회적 아동 수백 명을 대상으로 부모에게 감찰, 훈육, 문제해결 방법, 강화의 네 기법을 훈련시킨 결과 문제아동

의 반사회적 행동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즉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주체(agent)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 청소년에게는 민주적 양육태도보다는 자녀가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고 자녀와 정보를 공유하는 감찰이 문제행동 감소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심층면접에서 마음잡고 학교에 다니는 데 도움이 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좀 더 강력하게 자신의 생활을 구조화해주는 선생님의 도움이 컸다는 보고도 같은 맥락일 수 있다. 한참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에게는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보다 일관성 있고 강력한 양육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셋째, 개인간 변인 중 교사의 지지는 모든 변인들 중에서 학교적응유연성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을 뿐 아니라 잘 적응하는 청소년과 아닌 청소년을 변별하는 주요 보호요인이기도 하다. 실제로 심층면접에 응했던 10명의 적응력 높은 청소년들 중 7명이 힘들었을 때 선생님의 따뜻한 지지와 관심이 큰 힘이 되며 특히 자신이 힘겹게 애써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을 선생님이 인정해주고 칭찬해 줄 때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는 선생님은 따뜻하기도 해야하나 자신의 생활에 테두리를 그어주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선생님에게 오히려 든든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집단의 특성상 부모에게서 민주적이고 안정적이면서도 든든한 양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 또 아직 발달과정 상에 있는 청소년들이므로 생활을 구조화해 주는 선생님에게 각별한 신뢰를 보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개인간 변인 중 또래 지지 변인은 처음 예상과 달리 실제로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변인은 기존 연구들에서도 서로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 심층면

접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아이들이 보고하고 있는 또래관계를 통해 확인해 보면 적응적인 아이들은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이는 이 학교의 또래들과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보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 높은 또래지지가 학교적응유연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했다. 즉 이 나이의 청소년들은 의리가 강하고 동조성이 높아 주변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어울리는 친구 집단의 성격에 따라 심한·부적응적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적응적인 청소년들은 무조건 또래와 휩쓸리기 보다 나름대로 같이 어울릴 또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책임성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섯째, 사회환경적 보호요인 중 학교의 민주적 분위기 변인은 학교적응유연성에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부적응의 원인이 가정과 개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크게는 학교와 사회구조에 있다는 것은 당연하고도 중요한 지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했고 비교적 개인과 특정관계를 맺지 않은 객관적 상황을 조사한 것인데 동일한 학교의 분위기를 어떻게 다르게 지각하는 것일까.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잘 적응하는 아이들은 처음에 학교의 환경 면에 집중해 불만을 느끼다가 점차로 관계경험을 하면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즉 학생들을 어른으로 대접해주고 인정해주는 분위기에 집중하고 학교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높게 평가하게 되어 학교에 애착을 느낀다. 반면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폐쇄적이지 못하고 마치 공장같이 삭막한 학교환경과 무절제하고 충동적인 또래들의 분위기에 집중하고 교복도 안 입는 이런 야간학교에 다니는 것에 창피함과 열등감을 느낀다. 이들은 자존감이 낮으며 학교를 대부분 자신처럼 공부 못하고 실패한 아이들이 할 수 없어 다니는 곳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여섯째, 일(근로)의 경험은 연구결과에서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심층면접 결과를 보면 10명 중 9명이 일을 통한 긍정적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면접내용을 요약해보면 일을 함으로써 첫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등 자신의 생활습관이 구조화되고 자기 통제력과 책임감이 생긴다. 둘째, 경제력을 확보함으로써 빈곤이라는 현실문제를 제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당당함과 자유로움을 느낀다. 셋째, 대인관계 경험이 확대되어 자신이나 자신의 또래들과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게 되고 사회에 대한 지각이 넓어진다. 넷째, 부모에게서 성인으로서 인정과 존중을 받게되며 다섯째, 자신의 장래에 대한 경제적, 기능적(기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일을 함으로써 중퇴청소년들에게 특히 취약한 개인적 보호요인(책임감, 절제)을 늘리고 그 동안 살면서 공부 등을 통해서 받기 어려웠던 긍정적 피드백 경험(칭찬, 신뢰)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갖게 된다. 이 효능감이 다른 영역에도 일반화하게 되어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도 향상되고 장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면서 자신의 현재 생활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자기 관리와 자존감을 높여주며 학교생활 전반에 적응력을 키워준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실제 면접의 내용과 질문지 연구의 결과가 다른 것은 일의 경험이 이들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측정하는 데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무만족이라는 척도가 적합하지 못한 탓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한계점을 살펴보고 추후연구를 제안해 보았다.

첫째, 연구 대상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점이다. 우선 연구 대상의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고 거기에 맞춰 집단을 구성하기보다 이미 선정된 집단에 알맞은 성격 특성을 부여하려 했기 때

문인데 이는 본 연구의 필요성 자체가 이 연구집단 현장에서의 요구에서 시작된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사례수가 많지 않아 어떤 식으로든 사례수를 잘라내는 것이 연구 상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을 중퇴경험 청소년, 복교 청소년, 빈곤 청소년, 혹은 근로청소년, 그 어떤 면으로 규정을 해도 이 집단의 성격을 다 포괄하기에는 미비한 점들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집단의 약 80%가 중퇴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20%도 실제로 중도 탈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중퇴 청소년이라 이름 붙인 것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중퇴청소년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둘째, 너무 많은 변인들을 한꺼번에 조사해야 하는 관계로 각 척도들의 문항 수가 너무 적게 구성되었다. 따라서 민감한 측정에 좀 미약한 감이 있다.

셋째,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들이 많이 밝혀지긴 했으나 아직 설명되지 않은 많은 요인들이 누락되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또 이 요인들간의 인과관계나 상호작용을 밝혀내진 못했다.

넷째, 연구 결과 여러 보호요인들이 밝혀지긴 했으나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개인에게 보호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 기제, 혹은 과정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좀 더 효과적이고 민감한 개입, 예방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추후연구를 통해 그러한 보호과정이나 기제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의 경험이 학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거나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내적 경험을 하게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집중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학교 외의 별다른 대안이 없는 우리 나라의 중퇴 청소년들에게 진로에 대한 대안을 마련케 하는데 어떤 방향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는 몇 가지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첫째, 선행연구가 너무 미비하여 아직 탐색적인 단계이기는 하나 상담 현장에서의 만남 경험과 그 필요성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연구라는 점이다.

둘째, 누구보다 상담자의 도움이 큰 힘이 될 수 있는 대상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간의 상담현장은 이런 소외된 계층들에게 별로 다가가질 못하고 있다. 이런 점점을 마련하고 다가가기 위한 시도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위협요인보다 보호요인이 적용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개입에 상당히 낙관적인 희망을 느끼게 하고 앞으로 상담자 개입의 폭을 넓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청소년 내담자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해체된 가족구조 같은 위협요인보다 보호요인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상담자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 여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넷째, 개입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청소년 내담자에게 충동이나 분노를 조절하고 책임감과 계획성을 높이는 프로그램들을 실시해 개인내적 자원을 늘리도록 돕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 청소년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사들을 상대로 청소년들을 만날 때 필요한 다양한 기법들, 예를 들면 의사소통이나 공감 등에 관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해 교사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다.

### 참고문헌

교육개발원 (2000). *교육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준곤 (1992). 직무만족과 리더행동이 노조몰입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백정재 (1996).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유성은 (1997). *완벽주의적 경향, 사회적지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중년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명숙, 김영미 (1993). *가족구조와 부부불화가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01-216.

이선경 (1997).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의 이론적 과정모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숙영 (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학의 광장.

이시형, 이세용, 정현희, 박현선 (1996). *부모-자녀 관계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이영옥 (1997). *의미요법 집단상담이 여성 근로 청소년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영자 (1995).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전귀연, 최보가 (1995). *가족 적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2), 73-87.

한미현 (1993). *가정의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부모의 지지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82-194.

Alva, S. A. & Padilla, A. M. (1987). *A contextual interaction model of academic invulnerability among*

- Mexican American Students*. Los Angeles, CA: National Council of La Raza.
- Chiles, J. A., Miller, M. L., & Cox, G. B. (1991). Depression in an adolescent delinquent population. *Archives general psychiatry*, 37, 1179-1184.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Jr., Lorenz, F. O., Simons, R. L. (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3, 541-561.
- Franklin, W. (1995). *Risk and resilience in african-american adolescents: The role of protective and compensatory factor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Garmezy, N. (1996). Reflections and commentary on risk, resilience, and development. In Haggerty, R. J., Lonnie, R. S., Garmezy, N. & Rutter, M. (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process, mechanism, interven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ibble, P. A. (1991). *Parents' and children's view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qualities and stress-resilient outcomes in urban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Rochester.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David McKay.
- Hernandez, L. P. (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 *Child Development*, 62, 600-612.
- Masten, A. S. & Coatsworth, J. D.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 205-220.
- Patterson, G. R. & Loeber, M. S. (1984). The correlation of family management practices and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55, 1299-1307.
-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 Rutter, M. (1990b).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In J.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H. Nuechterlein, and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pp.181-21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ndler, I. N., Miller, P., Short, J., & Wolchik, S. A. (1989). Social support as a protective factor for children in stress. In D. Belle (Eds.),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s* (pp. 277-307). New York: Willey.
- Simons, R. L., Lorenz, F. O., Conger, R. D., & Wu, C. (1992). Support from spouse as mediator and moderator of the disruptive influence of economic strain on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3, 1282-1301.
- Wenar, C. (1994). 발달정신병리학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이춘재 외 공역)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원전은 1994년에 출판).
- Werner, E. E. (1990). Protective factors and individual resilience. In S. J. Meisels & J. P. Shonkoff (Eds.). *Handbook of early children intervention*, (pp. 97-116),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원고 접수일: 2001. 9. 28  
 수정원고접수일: 2001. 11. 23  
 게재 결정일: 2001. 12. 4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tective Factors for School Resilience: On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Gook Sun Yang      Sung Sook Chang  
The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isk factors concerning the school resilience and to explore what kind of protective factors serve to alleviate the influence of those risk factors among dropout or latent dropout adolescents. This study also aims at searching for the protective factors which exert influences on school dropout adolescents' school resilience under the same risky conditions.

Data were collected via a questionnaire survey of 92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who had experienced dropout or had been rated as latent dropout. The questionnaire was consisted of the check list of 7 risk factors (depressive/giving-up trait, aggressive/impulsive trait, personal developmental risk, family structure, family dysfunction, socioeconomic status, and life event stress) and the check list of 13 protective factors (responsibility, planfulness, internal locus of control, self efficacy, social skill, democratic parenting of the father, democratic parenting of the mother, the family's support, the peer group's support, the teacher's support, positive climate of school, job satisfaction,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with school resilience (composed of the interest in school, academic achievement, rule-governed conduct) as a dependent variable. To compare with ordinary students, 109 regular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in Youngdeungpo and Incheon were also surveyed with the check list of 7 risk factors and school resilience.

It was found out that the research group has been exposed to much more accumulated risk factors than the compare group. The most influential risk factor for the school resilience was the aggressive/impulsive trait of adolescents. There was the difference in characteristic quality between groups since students from single or no parent family in the comparison group tended to fail in school resilience, whereas those in the research group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s academic achievement. The influential protective factors for school resilience were the positive climate of school, the teacher's support, and responsibility. Overall protective factors are much more likely to explain school resilience than risk factors.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family structure, socioeconomic status, and personal developmental risk between high and low resilient adolescents at higher risks.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ggressive/impulsive trait, depressive/giving-up trait, life event stress, and family dysfunction. Among protective factors, responsibility, self efficacy, teacher's support and the positive climate of school showed significant influences on school resilience.

*Key Words* : school dropout or latent dropout adolescents, developmental task, protective factors, risk factors, school resilience (the interest in school, academic achievement, rule governed conduct)